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 제재 분석*

-『국어 1-1』(1986), 『국어 1-2』(1985)를 중심으로

김양희**

1. 서론

본고는 북한 교과서 『국어 1-1』과 『국어 1-2』 교과서를 대상으로 제재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는 1990년대 들어서 『국어 인민학교 1』로 통합되기 전까지, 문자지도를 중심으로 한 『국어 1-1』과 과체제를 취한 『국어 1-2』의 두 종의 교과서로 구성되었다.¹⁾ 이 논문은 『국어 1-1』(교육도서출판사,1986)와 『국어 1-2』(교육도서출판사,1985)를 대상으로 북한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제재와 내용을 검토하여 북한국어교과서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국어교육의 목적은 김일성에게 충직한 혁명전사를 기르기 해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해 쓰여진 것임(과제명: 근현대 민중어문교육 기초연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yhpocm7201@hanmail.net

1) 『국어 인민학교 1』로 통합된 연도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단지 1990년도본이 『국어 1-1』, 『국어 1-2』체제로 편재되어 있고, 1995년본 『국어 인민학교 1』 교과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통합교과서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국어교과서의 제재는 사회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²⁾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적인 제재에는 대개 주체적 문예이론이 반영되어 있다. 즉,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아, ①낯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②착취계급과 착취 사회에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③모든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는 투쟁을 형상화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³⁾

2. 『국어 1-1』의 제재 분석

1) 『국어 1-1』의 문자지도 제재의 구성 내용과 특성

『국어 1-1』 교과서는 문자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효과적인 문자지도를 위해 짧은 단어나 어절, 문장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문자지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되어 있다.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인 『국어1-1』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1. 기본 모음 익히기

(1) 기본모음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에 자음을 합쳐 음절을 만들

2)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역락, 63-65면.

3) 이인제 (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94면 참고

4) 허재영(2002), “남북한 초등학교 문자·발음 지도 비교”(『인문과학논총』 제38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를 참고하였음.

고, 그 음절이 들어간 낱말을 익히고,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익힌다.

2. 기본 자음(예사소리) 익히기

(2) 기본모음과 결합되는 자음의 순서는 'ㅇ/ㄱ/ㄴ/ㄷ/ㄹ/ㅁ/ㅂ/ㅅ/ㅈ/ㅊ/'이다. 하나의 글자를 익힐 때마다 그 글자로 시작하는 짧은 단어를 제시한다.

예)

ㄱ	가	가	거	교	교	구	구	그	그	아가	고기	
ㄴ	나	나	너	너	노	노	누	누	느	느	누가누가 이기나	누나 노

(3) 중간마다 복습자료를 제시한다. 복습 자료는 단어와 문장에 빈 칸 □을 주고 그 안에 알맞은 글자를 넣어 보게 한다.

예) 고 기 누 나

3. 받침 익히기

(4) 'ㄱ/ㄴ/ㄹ/ㅁ/ㅂ/ㅅ/ㅇ'의 순서로 받침을 지도한다.

예)

ㄱ(기옥): 너도나도 모여서 학교로 가요.

약 독 북 수박

ㄱ

ㄴ(니은): 아가야 아가야 고운 아가야 무럭 무럭 자라라 고운 아가야

눈 산

ㄴ

4. 거센소리 익히기

(5) 거센소리 ㅈ, ㅋ, ㅌ, ㅍ에 기본모음 10자를 합쳐 글자를 만들고 그 글

(10) 받침에서의 된소리 지도: ㄱ(된기옥), ㅍ(된시웃)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것이 들어간 문장을 제시한다.

예) ㄱ(된기옥) ㅍ(된시웃)

원수님 다녀가신 우리 마을 교시터 동글동글 조약돌 누가누가 닦았나
원수님 따르는 우리 마음 담아서 알른알른 닦았지 우리모두 닦았지

6. 이중모음 익히기

(11) ㅈ/ㅊ, ㅉ/ㅊ, ㅊ/ㅊ, ㅊ/ㅊ, ㅊ/ㅊ, ㅊ/ㅊ의 순서로 이중모음을 가르친다.

예) ㅈ/ㅊ: 만경대로 가요

아버지원수님/ 탄생하신 곳/ 아름다운 만경대로/ 우리는 가요//
손에 손을 잡고서/ 노래하며 가요/ 원수님 어린 시절/배우러 가요//

ㅊ/ㅊ/ㅊ: 처음 배우신 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처음 배우신 말은 《조선》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님께서 《조선》 하시면 인차 《조선》 하고 따라외우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이시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굵은 글씨: 원문)

7. 중화되는 받침 익히기

(12) ㄷ/ㅈ

(13) ㅈ/ㅊ

(14) ㅊ/ㅊ

(15) ㅎ

8. 겹받침 익히기

:나,냐,러,래,려,라,랴,ㄴ,냐,려,랴를 가르치고 이것이 들어간 문장을 제시한다

(16) 나: 이름(니은지웃)을 가르치고 나이 삽입된 예문을 익힌다

고운 모래 펴시였네

은모래 금모래/ 보드라운 모래/김정숙 어머니/언덕길에 펴시였네//
장군님 타신 차/가실 때도 사르르/장군님 타신 차/오실 때도 사르르//
장군님 그 언제나/편히 앉아 다니시라/어머님은 언덕길에/고운 모래
펴시였네//

(17) 냐/리: 냐(니은히웅)/리(리을기육)의 이름을 가르치고 이 접받침이 들어간 예문을 익힌다

(18) 래,려,라,랴,ㄴ,냐,려,랴의 순서대로 이름을 가르치고 이상의 접받침이 사용된 본문을 익힌다.

북한의 문자지도는 자모·음절식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단어 문장식 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남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가 ‘우리, 나, 너’⁵⁾이라는 단어를 읽고, 쓰는 데에서 문자지도가 시작되는데 비해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를 읽고 쓰는 것(모음 익히기)에서 출발하여 기본자음 익히기→거센소리 익히기→음절표(가갸표) 익히기→된소리 익히기→이중모음 익히기→중화된 받침 익히기→접받침 익히기의 순서로 문자지도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문자지도의 경우, 남한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활용하여 자모, 음절, 단어를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루 그림’과 ‘노루’라는 단어를 연속 배열하여 ‘노루’라는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북한의 문자지도와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⁶⁾

첫째, 10개의 기본 모음자와 14개의 자음자를 학습하도록 하고, 유치원

5) 『국어 읽기 1-1』(2000),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6면.

6) 최현섭, 이인제, 최영환(1999), 105~107면.

‘우리말’ 교과서에 제시한 어휘를 반복 제시하고 있다.

둘째, ‘ㅇ’자를 자음 중에서 제일 먼저 학습시키고 있다. 이는 모음자의 이름 학습 또는 자모가 결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자지도를 위해 제시한 문장이 산문보다는 운문이 많고 내용상으로도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반일·반미·반남한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국어 1-1』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요소가 문자지도와 더불어 사상교육을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어 1-1』 제재의 내용과 특성

북한 『국어 1-1』 교과서는 문자를 읽고 쓰는 데 전면을 할애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과’체제를 두지 않고, 낱말을 제시하고, 학습한 낱말이 포함된 본문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본문은 ① 문자지도와 더불어 ② 사상교육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인민학교 국어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교과목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학교 국어 교육의 목적은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키워주고,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 줌으로써 그들을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 인재로 키우는 데 있다.⁷⁾

7) 『인민 학교 교수 방법』(1987), 김형직 사범대학 (박갑수,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국어교육연구』5집(1998), pp118-15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재인용)

이상에 따르면, 인민학교 국어교육의 목적은 ①국어지식습득과 ②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런 목표에 따라 제시된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자. 사실, 국어 1-1에서 의미화 될 수 있는 지문은 ‘받침 익히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받침 익히기’ 이전 지문은 단어를 포함한 한 문장정도의 분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어 1-1』의 제재명, 내용, 문종은 다음 [표 1]과 같다.

지문명	내용	문종
만경대로 가요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지인 만경대로 가자	동시
개선문	김정일선생님이 세우신 개선문	생활글(문답글)
처음 배우신 말	김정일선생님이 처음 배우신 말은 ‘조선’	전기문
비밀련락 다니셨지요	김일성원수님의 항일투쟁사	동시
보천보 전투	김일성원수님의 항일투쟁사	전기문(김일성)
올해도 풍년	올해도 풍년이 들었다	동시
돌이가 부른 노래	남조선 소년 돌이가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줌	이야기글
기름나무 심어요	호두나무를 심자	동시
만경대 유희장	만경대 유희장	동시
고운 노래 퍼시였네	김정숙 어머님 칭송	동시
아이에게 주신 새 옷	김정숙 어머님 칭송	전기문(김정숙)
머슴 아이	머슴 석철이가 지주아들놈을 때려눕힘	이야기글
유격대와 아동단원	아동단원 영철이의 항일투쟁사	이야기글
욕심만 부리다가	메돼지가 욕심을 부리다가 쪽정이를 가짐	동화
영희의 기쁨	영희가 신문을 잘 읽어 부모님께 칭찬받음	생활글

[표 1] 『국어 1-1』의 구성

이것을 교과서에 실린 비중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재재문종	재재수	백분율
1	동시	6/15	40%
2	이야기글	3/15	20%
3	전기문	3/15	20%
4	생활글	2/15	13%
5	동화	1/15	7%

[표 2] 『국어 1-1』의 문종

(1) 동시의 내용

동시는 전체의 4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은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사실, 동시라는 형식을 빌었을 뿐 남한의 동시와는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다. 북한교과서에 등장하는 동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 찬양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986년 판 국어교과서는 읽기/쓰기/듣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동시가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단지, 북한의 교수법에서 시 읊기가 시의 사상·감정을 지도하여 사상적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정서적·운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⁸⁾을 고려해 볼 때, ‘시’라는 형식을 통해 인민학교 아동들이 김일성 체제에 대해 정서적인 친밀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상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8)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연구』, 역락, 45면.

『국어 1-1』에는 “만경대로 가요”, “비밀련락 다니셨지요”, “기름나무 심어요”, “올해도 풍년”, “만경대 유희장”, “고운 모래 퍼시였네”라는 제목의 총 6편의 동시가 실려 있다. 이 중 “만경대로 가요”, “만경대 유희장”은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와 만경대 놀이시설을 제재로 하고 있는 기행시이지만, 시의 말미에는 만경대와 관련된 김일성의 은덕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기행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기름나무 심어요”와 “올해도 풍년”은 각각 호두나무를 심어 생산성을 높이자는 내용과 풍년이 되어 부모님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생활시 역시 “아버지원수님의/높은 뜻 받들고/집집마다 심어요/기름나무 심어요”(“기름나무 심어요”), “해마다/찾아오는/만풍년은요//아버지 원수님/안아오시죠”(“올해도 풍년”)등의 시구로 마무리됨으로써, 김일성체제에 대한 찬양과 결부되어 있다. “비밀련락 다니셨지요”와 “고운 모래 퍼시였네”는 각각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김정숙의 너그러운 모성을 찬양한 시이다.

형식은 대부분 사행시로 유희나 외기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어 1-1』에 등장하는 동시는 대개 2연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아직 어린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2) ‘이야기글’의 내용

본고에서 ‘이야기글’은 여타의 서사장르-동화, 생활글(수필)-와 변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이야기글’은 실재했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재한 사건처럼 꾸며 구성한 이야기를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⁹⁾ 예컨대 항일유격대에서 일어난 일이나(“유격대와 아동단원”), 지주

9)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9)에서는 이야기 제재를 ‘전기도 아니고 실화도 아닌데, 실화 형식으로 표현한 제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본고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의 이들을 때려눕힌 머슴아이이야기(“머슴아이”), 남한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허구의 사건을 실재한 것(“돌이가 부른 노래”)처럼 꾸며 쓴 글을 뜻한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글’이 동시와 같은 비중으로 등장한다.

‘이야기글’에는 사상성이 짙게 가미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어린이인 ‘돌이’가 김정일 찬양노래인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어 다 함께 부른다는 이야기인 “돌이가 부른 노래”는 남한의 어린이들도 북한체제를 동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글이다.¹⁰⁾ 또한 “머슴아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지주의 이들을 때려눕힌 머슴 석철이의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인민학교 아동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공산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단원 영철이의 항일투쟁을 다룬 “유격대원과 아동단원”은 반일사상을 담고 있다.

(3) 전기문의 내용

전기문은 모두 세 편으로 다음과 같다.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다루고 있으며, “처음 배우신 딸”은 김정일이 처음 배운 딸이 ‘조선’이라는 단어로 김정일의 애국심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주신 새 옷”은 인민에 대한 김정숙의 지극한 모성애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은 지도력이 출중한 항일 유격대장으로, 김정일은 애국심이 넘치는 총명한 어린아이로, 김정숙은 인민을 감싸안은 푸근한 어머니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10)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1999)에서는 이러한 글을 아동의 생활을 기록한 글로 보아 생활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4) 생활글의 내용

생활글은 말 그대로, 생활을 기록한 글이다. 총 2편으로 “영희의 기쁨”과 “개선문”이다. “개선문”은 할머니에게 손자 길남이가 개선문을 구경시켜드리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명물인 개선문을 소개하려는 것보다는 “개선문”을 만든 김정일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부각되어 있다. “영희의 기쁨”은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게 된 영희를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제재는 ‘개선문’보다는 실제의 생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공부를 더 잘하여 김일성·김정일에게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영희의 다짐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 사상성(김일성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동화의 내용

동화는 다른 문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중이 낮으며 사상성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어 1-1』에 실린 “욕심만 부리다가”는 욕심쟁이 멧돼지가 착한 곰을 속이려다가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국어 1-2』 제재분석

1) 『국어 1-2』의 제재의 내용과 특성

『국어 1-2』는 과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1-1』 교과서는 문자지도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과체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국어 1-2』 교과서는 『국어 1-1』에 비해 이해수준이 높은 글들을 신고 있다. 『1-1』과 구분되는 점으로는, 과와 과 사이에 ‘련습’을 넣어 본문에 대한 이해와 국어지식습득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어 1-2』의 본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어 1-2』는 총 31과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과 이름	내용	문종
보고 싶은 원수님	보고 싶은 원수님	동시
우리 글자의 차례와 이름	우리 글자의 차례와 이름	설명문
꿈계 세운 울타리	유치원에서 김정일이 울타리를 세워줌	생활글
개미와 매미	게으른 매미와 부지런한 개미이야기	동화
묻는 말에 대답하기	묻는 말에 대답할 때의 자세	설명문
꽃리봉	꽃리봉 머리끈에 대한 동시	동시
입학하는 날	입학식날 김일성원수가 찾아온 이야기	생활글
단어란 무엇인가	단어의 뜻	설명문
참배	김일성이 아버지에게 참배를 드림	전기문
내 동생	동생이 자동차장난감을 모는 이야기	동시
우리 글자를 쓰는 차례	글자를 쓰는 차례	설명문
유격대의 나팔수	유격대의 나팔수가 김일성의 목숨을 지켜냄	이야기글
은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빗	동시
짧은 글짓기	짧은 글짓기에 대한 설명	설명문
두 아동단원 형님	두 아동단원의 항일 투쟁기	이야기글
해도해도 뜨기전에	어머니를 돕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	동시
글은 끊어 읽어야 한다	끊어 읽기	설명문
사철	사계절에 대한 스케치(사계절 풍경을 묘사하고 설명)	설명문
매미가 울면	김정일의 효심	전기문

과 이름	내용	문종
인사말하기	인사의 태도와 마음자세	설명문
영웅아저씨	소대장 김창걸의 반미투쟁	전기문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의 뜻	설명문
꼬마학교	어린 김일성이 친구에게 글자를 가르쳐 줌	전기문
꽃이불	김정일이 보내준 꽃이불을 덮고 자는 동생	동시
토란 무엇인가	토에 대한 설명	설명문
공부하고 싶어요	남한 어린이 수원이 월사금이 없어 학교에서 쫓겨남	이야기글
어테까지 왔니	동요 '어테까지 왔니'의 개사	동시
글을 띄어 써야한다	띄어쓰기 설명	설명문
뜨거운 사랑을 담아주고	아픈 어린이를 김정일이 병원으로 데려감	전기문
따사로운 품에 안겨	김일성이 순의와 지순에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줌	생활글

[표 3] 『국어 1-2』의 구성

* 22과 '다시 쓴 글씨'는 내용누락

이를 토대로 『국어 1-2』 교과서의 문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제재 문종	제재수	백분율
1	설명문	11/31	36%
2	동시	7/31	22%
3	전기문	5/31	16%
4	이야기글	3/31	10%
5	생활글	3/31	10%
6	동화	1/31	3%
7	기타	1/31	3%

[표 4] 『국어 1-2』의 문종

(1) 설명문의 내용

설명문은 전체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 지식		국어사용기능		기타
글자	우리 글자의 차례, 이름, 필순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묻는 말에 대답하기 ◦ 인사말하기, 인사의 태도 	우리나라의 사계
단어	단어의 뜻			
문장	문장의 이해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글짓기 ◦ 글씨쓰기: 띄어 쓰기 	
토	토의 이해			

이 표를 토대로 설명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명문의 내용은 국어지식과 국어사용기능에 대한 것이 두드러진다.

② 객관적 설명이 중심을 이루는 내용에도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포함하거나, 김일성·김정일과 연관시켜 학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1과 ‘우리 글자를 쓰는 차례’의 경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글씨를 잘 써야 하겠습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하고 있으며 14과 ‘짧은 글짓기’에서는 ‘례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었습니다.>와 같은 글을 만드는 것을 짧은 글짓기라고 합니다.’라는 예를 들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③ 국어사용기능 면에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읽기와 듣기 교육은 비중이 낮다. 단, 읽기 교육의 경우는 본문에서도 한 과(“글은 끊어 읽어야 한다”)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대개 <련습>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④ 국어사용기능의 경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원리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짧은 글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먼저 짧은글은 내용이 좋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러러바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 (『국어 1-2』 14과 “짧은글짓기”)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드리는 인사말을 잘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인사를 드릴 때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국어 1-2』 20과 “인사말하기”)

위 인용문을 통해 드러나듯이, 짧은 글짓기를 할 때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담아야 하며 인사를 할 때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김정일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등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⑤ ‘토’라는 용어는 ‘단어 뒤에 붙어서 쓰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사와 어미를 통칭하고 있다.

토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이루게 하며 문장의 뜻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학시험, 치다, 날>>하고 단어만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알맞은 토를 붙여 <<오늘은

수학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라고 하면 그 뜻이 똑똑히 나타납니다. (『국어 1-2』 제26과 “토란 무엇인가”)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른바 ‘토’로, ‘토’가 조사와 어미를 통칭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에 덧붙여 “토란 무엇인가”과에서는 ‘토’의 기능이 문장을 이루게 하고,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함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동시의 내용

동시는 총 7편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제재명	제재수
반미	· 내 동생	1
김정일 찬양	· 온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 · 꽃이불	2
김일성 찬양	· 해도해도 뜨기전에 · 보고 싶은 원수님 · 꽃리봉	3
반일	· 어대까지 왔니	1

주제별 비중을 살펴보면, 김일성찬양 > 김정일찬양 > 반미, 반일 순으로 나타났다.

김일성 찬양을 주제로 삼은 시들은 어린 시절 효심이 지극한 김일성주석의 모습(‘해도해도 뜨기전에’), 인민들에 대한 김일성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보고 싶은 원수님’, ‘꽃리봉’) 등 김일성의 인간적 매력을 최대한 부

각시킴으로써, 아버지로서의 김일성의 권위를 주입시키고 있다.

김정일 찬양을 주제로 삼은 시들은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은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을 강조하거나,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아낌없이 주는 김정일의 자애로움(‘꽃이불’)을 강조한다.

반미를 주제로 한 ‘내 동생’은 승리호라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동생을 노래한 시이다. 반미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국놈들 때문에/ 헐벗은 굶주리는/남조선동무들에게/실어가’려고 ‘아버지원수님이 주신 곱고 고운 비단에다 흰쌀’을 승리호에 실었다는 것으로 김일성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한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반일을 주제로 하는 시 ‘어데까지 왔니’는 구전노래인 ‘어디까지 왔니’를 의도적으로 개사한 동시이다.

(3) 전기문의 내용

전기문은 총 5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물	제목	제재수
김일성	· 참배 · 꼬마학교	2
김정일	· 매미가 울면 · 뜨거운 사랑을 신고	2
김창걸	· 영웅아저씨	1

전기문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 배’는 어린 김일성의 아버지에 대한 호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꼬마학교’는 가난한 아이를 무시하는 부잣집 아이를 보고 가난한 아이에게 손수 글을 가르쳐주

는 김일성의 유년기를 바탕으로 한 글로, 김일성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으며 효심이 가득한 착한 소년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정일의 전기문인 ‘매미가 울면’과 ‘뜨거운 사랑을 신고’는 각각 아버지 김일성을 위해 매미를 잡은 김정일의 효심을 그리고 있으며, ‘뜨거운 사랑을 신고’는 아픈 아이를 손수 병원에 데려다주는 인자한 지도자상을 그리고 있다.

전기문에서 특이한 것은 ‘영웅아저씨’이다. 항일유격대의 소대장인 영웅 ‘김창걸’을 주인공으로 삼은 글인데, 대개의 전기문의 소재가 김일성일가 일색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기문과 변별된다.

(4) ‘이야기글’의 내용

모두 세 편의 ‘이야기글’이 실려 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꾸며 쓴 글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공부하고 싶어요’는 월사금을 못 낸 남한 어린이 수원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인데,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 미제와 전두환 괴뢰놈이 끝없이 미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맺고 있다. 이로 보았을 때 이 글은 미국과 남한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글이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이야기글로 분류한 2편의 글은 ‘유격대의 나팔수’와 ‘두 아동단원의 항일투쟁기’이다.

‘유격대의 나팔수’는 유격대의 나팔수가 적을 유인하여 김일성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이고 ‘두 아동단원의 항일투쟁기’는 아동단원들이 피를 내어 일제순사를 죽이고 김일성부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생활글의 내용

생활글은 모두 세 편이 실려 있다.

주제	제재명	제재수
김정일의 인민사랑	· 곱게 세운 울타리	1
김일성의 인민사랑	· 입학하는 날 · 따사로운 품에 안겨	2

생활글은 김일성·김정일의 인민(아동)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곱게 세운 울타리’는 울타리를 세우지 못해 울상인 아이들 앞에 지도자 김정일이 나타나서 도와 주었다는 내용으로, 흐트러진 중심을 세우는 굳건하고 자애로운 지도자상을 그려내고 있으며, ‘입학하는 날’과 ‘따사로운 품에 안겨’는 각각 입학식날 찾아온 김일성 원수의 자애로움과 학교에 찾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히 보내준 김일성원수의 세심한 사랑을 그림으로써,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두터운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6) 동화의 내용

『국어 1-2』에 수록된 동화는 한 편에 불과하다. ‘개미와 매미’는 게으른 매미와 부지런한 개미에 관한 이야기로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베짱이와 개미’로 알려진 동화이다. 이 동화는 “근면”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데,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2) 『국어 1-2』: 「연습」의 내용과 특성

‘연습’은 각과의 본문 뒤에 실린 것으로 언어사용 기능 면에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으로, 언어지식영역에서는 단어와 문장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어 1-2』에는 설명문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연습’이 첨부되어 있다. 우선 읽기 영역 관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언어사용영역

① 읽기 영역

· 읽기 · 읊기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읽기 영역의 학습요소는 주로 읽기의 형태나 문종에 따른 낭독의 방식이나 낭송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¹¹⁾ 운문형식의 본문 뒤에는 ‘읊기’연습이 산문형식의 본문 뒤에는 ‘낭독하기’ 연습이 제시된다.

『국어 1-2』에서는 동시를 끊어읽고 높낮이 부호에 맞게 읊는 방식이 주종을 이룬다. 이를 포함하여 읽기와 관련된 지식으로는 ‘동시 · 동요 끊어읽기의 방법, 높낮이 부호에 맞게 읊기, 읽기 부호에 맞게 읊기,’등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1) 이인제 · 민병곤 · 이재기(2002). “북한의 읽기 교육 현황 분석-교수요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211면, 『독서연구』 제7호, 209~239면, 한국독서학회.

<p>제 6과 꽃리봉 학교로 가는 길에 노랑나비 팔랑팔랑 내 머리의 빨간 리봉 꽃인줄 아나봐요</p> <p>달려가다 돌아봐도 따라오며 팔랑팔랑 꽃밭에는 가지 않고 나만 자꾸 따라와요</p> <p>원수님 보내주신 꽃리봉 곱고고와 어디 한번 앉아보자 자꾸자꾸 따라와요</p>	<p>연습 1-2번 생략</p> <p>3. 다음 시련을 끊기 부호에 맞게 읊으시오</p> <p>학교로 가는 길에/ 노랑나비 팔랑팔랑/ 내 머리의 빨간 리봉/ 꽃인줄 아나봐요///</p> <p>4. 다음 시련을 높낮이 부호에 맞게 읊으시오</p> <p>→ 달려가다 돌아봐도 ↘ 따라오며 팔랑팔랑 → 꽃밭에는 가지 않고 ↘ 나만 자꾸 따라와요</p> <p>5. 다음 시련을 읽기부호에 맞게 읊으시오</p> <p>→ 원수님 보내주신/ ↘ 꽃리봉 곱고 고와/ → 어디 한번 앉아보자/ ↘ 자꾸자꾸 따라와요///</p> <p>(※ / 높게, \ 낮게, → 높지도 낮지도 않게)</p>
---	---

『국어 1-2』의 6과에는 ‘꽃리봉’이라는 시가 실려 있고, 이 시에 이어서 제시된 ‘연습’ 교재에는 모두 5가지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생략한 1, 2번은 발음·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3, 4, 5번은 읽기 부호를 고려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읊게 하는 학습과제로, 시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고

려하여 교과서집필자가 미리 표준화해 놓은 억양 등을 살려 시를 낭송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¹²⁾ 이러한 시 읊기 학습은 시의 주제를 내면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상을 고양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 발음 · 표기

읽기 교육 내용 중에는 문화어의 발음과 표기와 관련되는 학습 요소가 있다. ‘글자를 바르게 읽고 쓰기’, ‘발음대로 쓰고 틀린 글자 고치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② 쓰기 영역

북한의 쓰기 학습 요소는 크게 맞춤법, 문장부호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맞춤법 관련 학습요소는 ①문장에서 틀린 글자 고치기, ②바르게 표기한 단어 찾기, ③띄어 쓰기 규칙에 맞게 고치기 등으로 구체화된다.

예컨대, 3과 ‘곱게 세운 울타리’의 연습문제 4번은 ‘되지 안아, 흑물은, 끝삽, 끝내, 어땀게, 굿게’를 제시하고 틀린 글자를 고치도록 하고 있으며, 31과의 연습문제 4번은 ‘순의와지순이는너무좋아깡충깡충뛰었습니다.’를 띄어쓰기에 맞게 고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문장부호에 대한 학습요소는 문장부호의 이름과 쓰임알기, 문장에 알맞은 문장부호 넣기 등이 있다.

③ 말하기 영역

말하기는 ‘이야기하기’와 ‘말하기’로 나뉜다. ‘이야기하기’는 ①밑줄을

12)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1999), 127~129면 참고

그은 말을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②차례를 바로잡으면서 이야기하는 방식, ③본문을 읽고 느낀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①과 ②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③이라고 할 수 있는데 ③은 대개 사상성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남한 어린이 수원이가 월사금이 없어 쫓겨나는 이야기인 27과 ‘공부하고 싶어요’의 연습문제 3은 다음과 같다.

3. <공부하고 싶어요>에서 수원이가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것을 통하여 느낀 점을 다음 차례에 따라 이야기하시오.

수원이는 몹시 공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월사금을 물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남조선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세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품 속에서 월사금이란 말조차 모르며 마음껏 공부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이 행복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다.

위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는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집필자의 의도에 맞게 생각을 조절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말하기’ 역시 개인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대로 외우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이룬다. 『국어 1-2』에 제시된 말하기 요소는 ‘마음이 드러나게 알맞은 목소리로 말하기’로 지문을 감정에 맞게 읽는 것이다.

(2) 언어지식영역

① 단어

단어에 대한 학습요소는 적합한 단어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단어 연결하기, 반대말 찾기, 비슷한 말로 고치기, 맞는 글자 넣기, 빈곳에 알맞은 토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주어진 단어로 짧은 글짓기, 함께 쓰이는 단어 찾기,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새 단어 만들기 등으로 구체화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새 단어 만들기

다음 단어의 끝소리 마디를 이어 새 단어를 3개 이상 만드시오(3과 연습 3번)

례:오이-이마-마음-음악

꽃봉오리-

나무-

*빈자리에 알맞은 단어 넣기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 매미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4과 연습 문제 3번)

* 맞는 단어 넣기

다음 밑줄을 그은 데에 맞게 쓴 단어를 찾아 넣으시오

나팔수 아저씨는 큰 ---- 뒤에 서 있었습니다.(솔나무, 소나무)

(12과 연습 1번)

*짧은 글짓기

다음 단어로 짧은 글을 지으시오

만경봉, 아침 (16과 연습 3번)

② 문장

『국어 1-2』 교과서에서 문장에 관한 학습요소는 그다지 높지 않다. 문장에 대한 학습요소로는 주어진 단어로 문장 만들기, 묻는 말이 되게 문장 고치기 등이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묻는 말이 되게 문장 고치기

다음 말을 묻는 말이 되게 고치시오

예: 오늘 국어숙제를 다했습니다.

오늘 국어숙제를 다했습니까?

ㄱ. 래일 체육경기가 있습니다.

ㄴ. 동생은 책을 읽습니다. (21과 연습문제 4번)

*주어진 단어로 문장만들기

다음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넣어 짧은 글을 지으시오

ㄱ. 보고싶다, 만나뵈다 ㄴ. 기쁘다, 웃다 (31과 연습문제 2번)

4. 결론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1-1』 교과서와 『국어 1-2』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어 1-1』 교과서는 문자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지도의 방법으로 자모 음절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어 1-1』 교과서는 특별한 ‘과’체제를 두지 않고, 낱말을 제시하고, 학습한 낱말이 포함된 본문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본문은 ① 문자지도와 더불어 ② 사

상교육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어 1-2』 교과서는 설명문, 시, 전기문의 순으로 수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주제로는 김일성 일가 찬양, 사회주의 의식 고취, 남한 비판, 혁명 정신 고양, 반남한·반미·반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이 강조되지 않은 문종으로 동화를 들 수 있다. “욕심만 부리다가”와 “개미와 매미”는 비교적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순수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영역별 교육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읽기 영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소는 낭독·낭송 영역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내면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쓰기 학습 요소는 크게 맞춤법, 문장부호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맞춤법 관련 학습요소는 ①문장에서 틀린 글자 고치기 ②바르게 표기한 단어 찾기 ③띄어쓰기 규칙에 맞게 고치기 등으로 구체화된다.

말하기는 ‘이야기하기’와 ‘말하기’로 나뉜다. ‘이야기하기’는 ①밑줄을 그은 말을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②차례를 바로잡으면서 이야기하는 방식 ③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마지막으로 언어지식 영역은 단어와 문장으로 나뉘어진다.

단어에 대한 학습요소는 적합한 단어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단어 연결하기, 반대말 찾기, 비슷한 말로 고치기, 맞는 글자 넣기, 빈곳에 알맞은 토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주어진 단어로 짧은 글짓기, 함께 쓰이는 단어 찾기,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새 단어 만들기 등으로 구체화된다.

문장에 대한 학습요소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문장에 대한 학습요소로는 주어진 단어로 문장 만들기, 묻는 말이 되게 문장 고치기 등이 있다.

참고 문헌

- 『국어 1-1』, 교육도서출판사, 1986.
- 『국어 1-2』, 교육도서출판사, 1985.
- 『국어 읽기 1-1』,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0.
- 최현섭·이인제·최영환,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 박갑수,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국어교육연구』 제5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1996.
- 이인제,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인제·민병곤·이재기, 「북한의 읽기 교육 현황 분석-교수 요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7호, 한국독서학회, 2002.
- 허재영, 「남북한 초등학생 문자·발음 지도 비교」, 『인문과학논총』 제38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Abstract

An analysis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of object for
first grade

Kim, Yang-hee

This research aim to find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problem which literature education teaching subject currently used in North Korea. Basically, perspective of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is communism. On this view, purpose of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is to forest a man which bear communism.

Firstly,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of first grade teaches a letter "Hangul", and a teaching method use "consonant · vowel syllable". This method is different to South Korea's teaching way which is "word · composition"

Secondly,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of object for first grade are made of poetry, verses to living, biographic which are connected with Kim Il-sung and Kim Jung-il, and novel. The main subject of North Korea's Literature Education for first grade are praise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critic to United State · South Korea, praise of Communism and so on. But novel for children forms humanistic subject like honesty and diligence.